

2019년 9월 26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. 25.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배포일시 | 2019. 9. 25.(수)      | 담당부서 |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           |
| 담당과장 | 이용필 과장(044-203-5360) | 담당자  | 장민재 사무관(044-203-5363) |

## 산업부, 하반기 태양광 경쟁입찰 용량 확대(350→500MW)

- RPS 의무이행량 조기이행 등 추가적인 REC 시장변동성 완화 대책도 추진 -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올해 상반기보다 150MW가 확대된 500MW 규모로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절차를 9월 27일부터 개시한다.
- 최근 단기 거래시장인 REC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EC : Renewable Energy Certificate) 가격변동성이 확대되고,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른 태양광 경쟁입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입찰 용량을 확대하게 되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.
- 산업부는 9월 27일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([www.knrec.or.kr](http://www.knrec.or.kr))를 통해 입찰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, 10월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고, 11월 29일 경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.
- 하반기 입찰에서 낙찰된 사업자는 향후 REC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가격(SMP+REC)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와 20년 동안 장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산업부는 이 외에도 REC 시장변동성을 완화하고,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투자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축소하기 위해 조만간 단기적인 대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### 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연기량을 '19년에 조기이행

- 그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20% 범위 내에서 3년간 연기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인정받아 왔으나,
-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확대됨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'20년 및 '21년으로 연기한 의무공급량을 금년 말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.

### ② 한국형 FIT(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) 참여 추가기회 부여

- '18.6월부터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FIT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현물시장에 참여하고 있던 기존 사업자들에게 대해서는 '18.11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.
- 산업부는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했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한국형 FIT\*에 대한 추가 신청을 허용함으로써 장기계약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.

\* (개인) 30kW 미만, (농축산어민 또는 협동조합) 100kW 미만

※ 9월 30일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([www.knrec.or.kr](http://www.knrec.or.kr))에 추가신청을 위한 한국형 FIT 공고문을 게재할 예정

### ③ 현물시장 매도·매입 상하한 한도 축소

- 주 2회(화, 목) 전력거래소에서 개설하는 REC 현물시장은 현재 직전거래일 종가의 ±30%에서 매매주문이 가능하나,
- 급격한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'19년 하반기에 관련규정(전력시장운영규칙)을 개정하여 연내에 ±10%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.

- 산업부 관계자는 "REC 시장의 가격변동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, 금번 단기대책 시행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겠다."고 밝혔다.